

한국인의 고향관: 그 지리학적 요인과 정서(ethos)의 관계*

이은숙** · 신명섭***

Koreans' Sense of Home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thos and Relevant Geographical Attributes*

Eun Sook Lee** · Myongsup Shi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향의 개념을 의미론적 측면과 지리학적 입장에서 정의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고향의 공간적 대상, 고향에 대한 감정과 선호, 고향의 지리적 특징 및 이미지 등을 조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의 본질과 정서(ethos)를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은 본질적으로 고향의식과 회귀본능과 같은 고향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정서로부터 나온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보편적 정서 위에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는 고유한 고향의식이 첨가되었다. 사회적 배경에서 발생된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은 호에 근본을 둔 유교적 전통, 남북분단, 도시화에 따른 광범위한 실향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고향이미지는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적, 인문환경적, 감각적 요소가 모두 수렴된 전형적이며, 추상화된 유형으로 나타난다. 넷째,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정서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보편적 정서와 대체로는 일치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인구·사회적 배경과 공간적 체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고향개념, 장소애, 고향의식, 지방색, 에토스

Abstract : While dwelling on the delicate subject of "sense of place," U.S. naturalist Paul Shepard (1967) persuasively observes that "The environment is encountered in a way in which self and place are related." Now an environment wherein the intuitive self-place relationship develops most intimately is of course the existential domain called "home," which readily conjures up the image of happy childhood and inevitable nostalgia owing to the ephemeral nature of innocence.

Although universal, the notion of home (kohyang=故郷, lit. "old village") has an especially strong hold on the Korean psyche as eloquently demonstrated by the massive annual exodus of urbanites "going home" during the harvest season called Chusok (秋夕, lit. "Eve of Autumn"). The magnitude of this cultural phenomenon is such that even the march of lemmings would pale before it. What is the magnetism of kohyang, though, that not only causes such a seasonal frenzy each year but also constitutes a major theme in great many literary works and popular songs? As an endearing home base, kohyang certainly engenders the self-place relationship and, with its unique geo-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topography, flora and fauna, colors, sounds, smells, sights, human relations, and memorable events, kohyang either real or remembered also is deeply tied to the ethos of Koreans as a people particularly today when the forces of rapidly mechanized, urbanized civilization compells them to look for ways to recover their pre-industrial pace of life and identity both personal and social. For Koreans as probably for other peoples as well, kohyang provides clues with which to determine the meaning of life, that is, the prototype of life that works as a mirror, as it were, in their consciousness. And herein lies the merit of an endeavor to prob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thos and the geographical attributes of their lebensraum.

Key Words : sense · concept · image · consciousness of kohyang, attachment to place, ethos, locality, geopiety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영어과 교수(Professor, School of Englis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 서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애향심은 특별하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 때마다 보는 소위 '민족 대이동'이라는 귀향 행렬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성서의 출애굽(exodus)을 방불하게 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끼리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이를 화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다. 또한 시나 소설 등과 같은 문학작품의 주제가 고향이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고유한 고향관에서 연유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만일 그것이 한국인의 고유한 고향관으로부터 나온 현상이라고 한다면, 고향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정서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관의 기본적 속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장소와 그 장소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사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형상화되었거나 이것이 개념화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은 장소로서의 지리적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정서(ethos)적 측면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고향의 산·강·들과 같은 자연환경의 특징, 공동체적 삶·빈곤·가족관계 등과 같은 인문환경의 특징, 소리·냄새·색채의 지각과 같은 감각적 요소들은 고향과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거주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즉 고향은 개인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과 사유의 발단이 되고, 심리적 작용의 기저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겪은 민족적 고난과 변화의 생활사는 개인의 고향이미지와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수많은 콩트·시·수필·기행문·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유행가와 즐겨 부르는 가곡의 가사만 보더라도 고향이 직접·간접적 주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거기에는 실향민의 설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 또는 기계화되고 대형화되어

가는 생활양식으로부터 나오는 허탈감과 이에 대한 저항감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허탈감과 저항감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고향'이라는 말에 포괄되어 있다. 이 말에는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아(nostalgia)가 스며 있고, 산업화 이전의 한국인 본연의 자세와 템포를 찾으려는 개인적·사회적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고향 상실로 인해 생기는 정체성 상실과, 이로 인한 방향 감각의 상실, 소외감, 회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향과 관련된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고향에서 얻을 수 있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고향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우리 삶의 원형(prototype)으로 자리하여 우리 의식 속에서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이란 새로 목격된 것을 여기에 비추어서 얻는 인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고향을 되돌려주는 것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부적응과 아노미(anomie) 현상의 치유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1) 연구 목적과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의미론적 측면과 지리학적 입장에서 고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공간적 대상과 그 범위, 고향에 대한 감정과 공간적 선호, 고향의 지리적 특징 및 이미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의 본질과 정서(ethos)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향을 주제로 하는 논문, 시, 픽션·논픽션 문학 작품,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수상기, 여행기, 가곡의 가사, 등 문헌을 중심으로 고향의 개념을 정의하고, 고향의 지리적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표본수집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칭하는 고향의 공간적 대상과 규모, 공간의 구성요소, 고향이미지, 고향의식 등의 전체적인 특징을 조사하고, 인구·사회·거주공간적 배경이 서로 다른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료 분석에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²⁾

셋째는 고향이미지를 표현한 그림과 문장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조사하고, 이의 지리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다.

넷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의 기저에 놓여 있는 지리적 요인과 정서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표본조사 방법과 표본집단의 인구·사회적 특징,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본조사는 그 초점이 질적 속성을 파악하려는 데에 있었으므로 질문지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대부분 속성적인 것으로 명목척도로 조사되었고, 부분적으로 순위척도가 사용되었다. 표집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표집 방법은 성별, 연령별, 교육별, 거주공간별로 유의한 무작위 표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질문지 배포와 수집 기간은 1999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며, 서울과 부산, 대전, 군산, 원주, 고양 등과 그 주변 촌락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선정된 조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496매 가운데 유효자료는 모두 473매였다.

표본집단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녀 각각 약 47%와 53%이다. 이는 전국인구 가운데 20대 이상 남녀 49%와 51%와는 2%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표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편향치로서 통계적 분석에 비모수검정기법(非母數檢定技法)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30대의 청년층 비율이 57%이고,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43%로 모집단의 구성비와 거의 일치한다. 교육별 구성을 보면, 중등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 응답자의 43%이며, 대학재학 및 졸업자는 57%에 해당된다.³⁾ 표집 집단의 거주공간적 배경은 생애경로에서 체험한 공간을 중심으로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현재 거주지로 구분하여 질문한 후, 다시 이를 각각 도시와 촌락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하였다.⁴⁾ 출생지의 도시와 촌락은 비율이 각각 41%와 56%이고, 성장기 거주지는 52%와 47%, 현재 거

주지는 61%와 38%이다.

표 1. 표집집단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성별 \ 연령별	30대이전	40대이후	합 계
남 성	23	24	47
여 성	34	19	53
합 계	57	43	100

표 2. 표집집단의 성별·교육별 구성

(단위: %)

성별 \ 교육별	중·고등 졸업	대학재학 및 졸업	합 계
남 성	19	28	47
여 성	25	28	53
합 계	44	56	100

표 3. 표집집단의 연령별·교육별 구성

(단위: %)

성 별 \ 교육별	중·고등 졸업	대학재학 및 졸업	합 계
30대이전	22	35	57
40대이후	21	22	43
합 계	43	57	100

표 4. 표집집단의 공간 배경별 구성

(단위: %)

공간배경 \ 구분	도 시	촌 락	합 계
출 생 지	41	56	97
성장기 거주지	52	47	99
현재 거주지	61	38	99

주: 합계의 100% 미만분은 무응답 비율임.

2) 연구 동향

고향에 관한 국내 지리학 분야의 연구로는 고향이미지와 고향의식을 취급한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의 지리학이 이론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임상윤(1990)은 경상도 출신 대학생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향이미지의 특성과 고향공간에 대한 인식 차이, 고향공간의 인지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⁵⁾ 그리고 류우익(1992)은 고향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욕구의 본질과, 현재 거주지를 고향으로 간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⁶⁾

한편 신명섭(1997)은 고향이미지를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고향이미지를 재현하였다.⁷⁾ 그밖에 1930년대 고향을 떠난 국내와 국외 이민들의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공간인식에 영향을 주는 그들의 고향의식에 대한 이은숙(1993, 1995, 1996, 1998)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고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연구나 한국인의 고향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국내 문학 분야의 고향에 관한 연구에는 지리학적 견지에서 참고할 여지가 있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제만해(1994)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연구, 김재수(1982)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고향회귀의 주제에 관한 연구, 이규태(1983)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등 고향이라는 장소에 집착하는 한국인의 본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강인숙(1997)은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도시문제의 요인과 고향의식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도시문제가 현대화 과정에서 온 가치관 상충이나, 가족주의적 전통과 시민의식과의 갈등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도시화에 따른 아노미 현상의 반작용이 고향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는 고향공간과 도시공간을 대조하여 고향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밖에 양현승(1987)은 시에 나타나는 고향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문학분야의 고향에 관한 연구는 고향의식과, 회귀본능과 같은 고향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 측면과 고향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리학이 공간에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 등을 탐구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참조할 여지가 있다.

고향에 대한 국외 연구로는 고향공간에 집착하는 인간행태, 고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 장소로서의 고향공간의 지각과 인지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고향에 집착하는 행태에 관한 Beesley(1990)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도시인을 대상으로 고향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이 거주지 선호행태에 반영되는 경향을 조사하고, 고향과 거주지 이동경로와의 관계를 밝혔다. Terkenli(1995)는 장소가 고향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 현대 사회적 특성이 장소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정체감을 약화시킴으로써 고향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 도시생활에 대한 익

숙함이 고향회귀의 장애가 되는 한편 고향에 대한 애착과 고향의 범위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Low와 Altman(1992)은 장소에 대한 집착(place attachment)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개념에는 고향, 환경, 성역, 근원 등에 대한 집착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Riley(1992)는 인간이 가장 애착을 갖는 경관은 고향경관이라고 하였다. 그는 고향에 대한 애착은 개인이나 집단이 이전에 가졌던 공간체험을 이후에 경험한 보다 넓은 경관 속에 포함시켜 조직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문화적 산물로서의 고향경관은 감정적 애착과 정체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Fulllove(1996)는 활동장소의 변경이 사람들의 심리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인과 그들의 친밀한 환경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장소심리학을 통해 고향상실이 향수, 방향 감각의 상실, 소외감 등과 같은 심리적 과정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인지와 고향의식과의 관계를 논한 연구도 있다. Norton(1997)은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경험은 자신의 고향을 조망하던 방법과 고향에서 인지된 내용으로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지각과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선호는 그들의 고향경관에 대한 인지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고향의 개념

1) 의미론적 개념

민속학자 Cioranescu(1971)는 '유토피아'와 '노스텔지아', 그리고 이른바 '황금시대'라고 하는 세 가지 관념의 유기적 관계를 논하는 그의 글에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던 황금시대를 상상하는 까닭은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뒤돌아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⁸⁾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애착을 갖는 고향의 한자어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나타낸다. 즉 고향(故鄕)의 옛 '故'와 마을 '鄕'. 이 두 글자가 '옛날에 태어나서 자란 마을'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본다.

(1) 유희공간

고향이라는 개념의 의미론적 기본 요소는 흘러간 시간과 언제나 그리운 어린 시절의 유희공간(遊戱空間)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진 장소이다. 잃어버린 시간이란 개인 생활사의 누적된 단계들이며, 잃어버린 공간이란 유토피아이며, 이상향이고, 패러다이스이다. Tuan(1986)은 유희공간이란 패러다이스와 같은 곳으로, 그 자체가 자유를 의미하며, 시간은 망각되고 뛰노는 삶이 너무나 즐거워 자아와 세상이 온통 하나가 되어버리는 곳이며, 시골(촌락)과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¹⁰⁾ 우리 나라의 동요 「고향의 봄」은 이와 같은 고향공간을 사진처럼 잘 표현해 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 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이원수 작사,
 흥난파 작곡).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은 이 노래 속에는 그대로 마셔도 좋을 듯한 계곡의 맑은 물, 탁 트인 공간, 봄철을 맞아 울긋불긋 만발한 개나리·철쭉·진달래꽃, 또 이들의 색깔과 향기에 끌려 분주히 날아다니는 갖가지 곤충들, 그리고 이 같은 자연미에 매료되어서 뛰쳐나와 노니는 동네 어린이들이 보인다. 여기에서 '어린이'라는 말은 순수성을 나타내며, 걱정과 근심이 없고, 힘든 노동이 필요 없는 자유·행복·평화로 이룩된 이상향(ideal home, utopia)을 연상하게 만든다. 유토피아는 물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환상(illusion, fantasy)으로 고착된 이념(idee fixe), 즉 강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그의 고향 박적골을 "나의 낙원이었다. 뒤란은 작은 동산같이 생겼고 딸기 줄기로 뒤덮여 있었다. (중략) 사랑마당은 잔치 때 명석을 깔고 차일을 치면 온 동네 손님을 한꺼번에 칠 수 있도록 넓고 바다가 고르고 판판했지만 들레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화나무가 덤불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낙원의 이미지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그는 그의 작품에서 고향은 낙원, 도시는 지옥으로 도식화하였다.¹¹⁾

(2) 잠재의식 속의 고통

고향의 속성은 근본적으로는 과거 지향적이지요, 또 그 본질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진 옛 향리(鄕里)에 대한 그리움이다. 노천명은 그의 시, 「고향」에서 이러한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본향으로
 ----(중략)
 나중엔 고향 가 살다 죽으리
 매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중략)
 꿈이면 보는 낮익은 동리(노천명, 고향).

현대인은 유목민의 속성을 지닌다. 생애를 통해서 갖가지 요인으로 주거지를 변경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은 영원한 실향민으로 향수에 젖어 산다. 향수의 원형은 유희 공간과 낙원의 상실, 즉 유토피아의 상실에 따른 고통이다. 인간은 과거의 특정 시간과 공간으로 형성된 망에 걸려 있는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경험의 각성에 불과하다는 한정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미지를 부여해야만 비로소 생생한 것이 되고, 가치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고향은 다시는 감각될 수 없는 왜곡된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사람들이 이를 생각할 때마다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¹²⁾ 다음의 이은상의 「가고파」는 이러한 특징을 잘 그리고 있다.

물나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다름질하고
물들면 뱃장에 누워 별해다 잠들었지
인제는 못그런다니 설어워라 설어워(이은상, 가고파).

정지용의 「향수(鄉愁)」에서도 '그곳이 차마 꿈
엔들 잊힐리아' 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고통을 볼
수 있다.

----(중략)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밭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사 줌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중략)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 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정지용, 향수)!

그러므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속에는 우울
과 애수 내지 잠재의식 속의 고통을 포괄하는 개념
을 지닌다. 실제로 실향민이나 타향에 거주하여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다
분히 고향의 부정적인 속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된
다. 이를 향수(鄉愁) 즉 '고향이 그리워 느끼는
슬픔'이라고 한다.¹²⁾ 유년시절 고향에서 할아버지
와 잠새를 잡고 놀던 일을 되새겨보는 수필 「나의
유년 시절」에서 박상윤은 이렇게 말한다.

아 그렇다. 내 어릴 적 고향집 지금도 들녘의 황혼
이며 대숲의 노래도 여전히겠지... 황혼 빛 물든 들녘에
 울려 퍼지는 엄마의 메아리 소리, 새 새끼들의 지저귐.
 아 적도 컷가에 선하고 오늘은 웬지 어머님 생각에 눈
 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돌아 손수건을 적시네.¹³⁾

그러나 고향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다시 긍
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은 가치를 지닌다. 시공적(時空的)으로 우리
와는 다른 환경에 있던 영국의 낭만 시인
Wordsworth의 시에서도 박상윤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우수(憂愁)의 감정이 나타난다. 그는 젊은
시절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보트를 타고
Windermere 호수를 신나게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

던 순간 땅거미가 질 무렵 시야에 들어오는 광경
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고향에 대한 이러한 추
억이 그에게 아름다움(美)은 곧 진실이라는 의미
를 갖도록 하였다.

옆의 친구는 피리를 불고 있는데
잔잔하고 죽은 듯 고요한
호수의 물은 내 마음 위에 누웠네
그리고 난생 처음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하늘은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와
꿈인 듯 나를 안아주었지¹⁴⁾

(3) 순환성

한편 Wordsworth와 동시대의 문학비평가 De
Quince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자여, 그대의 두뇌 속 양피지 위에
거듭 적혀진 애회(哀悔)의 불가해한 필적들은
원시림의 일년생 나뭇잎이나 혹은
히말라야산의 만년설처럼 겹겹이
쌓여있지만 그렇다고 망각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요!¹⁵⁾

이 글은 인간의 본성적 측면의 또 다른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과거와 결별할 수 없
는 속성을 말한다. Gill은 이 시가 의미하는 바를
"인간에 대한 모든 탐구에 있어서 관건은 진실로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점에 있다"
라고 요약하고 있다. 즉 기억(memory)이란 사
람들로 하여금 옛 일을 탐색하게 하고, 그들의 존재
의 모든 단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며, 경험의 순간들을 간직하고 강조하여
줌으로써 평생토록 구원의 힘과 활기를 불어일으
키며, 과거와 결별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통
해서 과거를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미래의 삶
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점에서 고향은 우리 자신의 근원을 알
도록 하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삶의 대한 긍정
적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물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지표 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설날 아

침 뉴스에서 “부모를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던 살아 있어야 하겠다.”고 하며 삶의 의욕을 보이는 고향의 실향민을 흔히 볼 수 있다. 부모를 만나는 것은 고향에 간다는 말이다. 비행사였던 썸뱌퀴페리가 사막에 불시착하였을 때도 그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준 것은 고향집이었다. 그는 소설 「야간비행」에서 “어디엔가 검은 전나무와 보리수가 들어찬 정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집이 한 채 있었다. (중략) 그것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지내는 밤을 견디게 해주었다.” 라고 말한다.¹⁷⁾

이와 같이 순환성은 곧 고향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 Eliot도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강조하고, 그 매개체를 기억이라고 하며,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자유를 성취하고, 또 만사가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였다.¹⁸⁾ 이와 같이 과거라는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나온 부정적 요인은 현재의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고향의 본질적 개념 속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순환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즉 고향이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추억 속에 있는 장소이므로 슬픔을 자아내지만, 이것은 대체로 행복하거나 아름다웠던 일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현재의 우리에게 다가와 삶의 활기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능동적 속성을 지닌다.

위의 Eliot의 글귀는 인간의 총체적 경험을 순환적으로 보았던 저자의 문명관을 대변해 주거나, 우리 주제로 돌아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점, 즉 기억이나 추억의 순환성(circularity)이 고향의 본질임을 이해하게 한다.¹⁹⁾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고향 생각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되새길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며 정신적 힘의 원천이 되어 준다. 한마디로 고향은 우리의 ‘청순했던 나날들’이 담겨있는 동심의 세계이다. 동요작가 윤석중의 표현대로 ‘동심은 우주 만물과’ 통하며, ‘나와 나 아닌 세상 모든 것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바로 여기에 고향의 참 뜻과 값이 있다고 하겠다.²⁰⁾ 또한 고향의 이러한 개념들을 현실적 문제의 조절에 도입한다면 고향의 과거 지향적 속성을 극복하고, 이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길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²¹⁾

2) 지리적 관련성

고향의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지리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 하면 고향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간에 하나의 장소를 상징하는 공간적 대상으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그곳의 자연환경과, 모든 인공적 구조물과 문화적 산물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즉 고향은 환경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 수렴된 진정한 지리적 세계이다. 그런데 지리적 세계란 바로 하나의 지역이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터득된 생활양식을 통해서 그들 주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이를 기초로 상이한 지역과 경관을 창출하며, 그곳을 그들에게 의미있는 장소로 만든다.²²⁾ 그러므로 사람들은 고향을 통해서 그들의 지방색(locality)을 소유하게 되고, 장소애(topophilia)도 갖게 된다.

(1) 지방색의 소유

Lewin(1992)은 지방색이란 장소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으로, ‘심리적 생활공간(psychological life space)’이라고 정의한다.²³⁾ 그러므로 지방색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총체이다. 즉 고향환경의 인지, 또는 고향에서 습득한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 등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선호와 애착이라는 심리적 과정이 발생되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지방색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애착을 갖고, 그 장소와 관련이 있는 집단 사이의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장소와 관련된 추억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즉 지방색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항상 이웃이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농장이나 마을의 이름을 따서 불렀던 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살았던 지역과 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소애의 원천

고향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의 전형이며, 이상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애착과 사랑을 느끼기 마련

이다. 이것을 Tuan(1974)은 장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를 장소애(場所愛, topophilia)라는 신조어(新造語)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소애를 조성하며, 이것을 지니도록 하는 곳은 바로 사람들의 고향이다.

환경에 대한 사람의 기본적 반응은 심미적인 것이다. 이것은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순간에 얻는 시각적 즐거움일 수도 있고, 맑은 공기, 물, 대지로부터 감촉되는 싱그러움일 수도 있으며, 그밖에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이러한 느낌을 경험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고향이다. 사람들은 오감(五感)을 통해서 이를 지각하고 기억한다. 눈앞에 전개된 하늘의 색깔과 산의 곡선, 손에 쥐어 본 갖가지 먹을 것, 도시의 소음에 섞인 빗소리,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 등은 과거의 사건과 장면을 연상시키며, 과거에 대한 향수 어린 추억을 되살리게 한다. 어릴 때 한국을 떠난 어린이가 네덜란드의 목장지대의 분노 냄새를 맡으며 '한국 냄새(Korean smell)!' 라고 외쳤다고 한다. 우리가 알던 곳의 경관은 변하고 우리가 걷던 길이 변해도 감각을 통해 얻었던 경험들은 남아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장소애란 쉽게 말해서 추억의 소재지(locus)로서 삶의 의미를 주는 장소(place)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고향에 대한 사랑이다.²⁴⁾

Torsten(1980)은 고향에 집착하는 태도의 본질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이 텃밭이든, 마당이든, 장원이든 간에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투쟁, 그리고 민족영토나 조상의 땅과 같은 공동 영역에 대한 투쟁, 의식주 획득을 위한 투쟁, 반려자의 소유를 위한 투쟁,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려는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장소애를 확대시킨다면, 세계 시민으로서 지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²⁵⁾ 그리스의 소수민족 Kabylian은 파괴되어 가는 그들의 고향 산간 마을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거부 이유를 "그곳은 사랑(It is love)"이라고 하였다고 한다.²⁶⁾ 이는 고향이 장소애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고향의 공간적 대상과 규모

현대사회에서는 촌락지역에 대한 도시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한편, 촌락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직장을 찾아 이동하거나 도시의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주택을 찾아 이동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향은 어느 곳이어야 하는가? 즉 부모님의 고향,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현재 거주지 중에 어느 곳이 그들의 고향인가, 그리고 만일 현재의 거주지가 고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고향으로 의미가 전환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

1) 고향공간의 대상지

많은 사람들은 고향이란 선친이 묻힌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그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선친이 묻힌 곳을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시간적 순환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현재를 과거와 미래로 연결시켜 자신의 실존을 의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가 있다. 다음에 인용된 시 구절을 통해서 보면, 묘지라는 공간이 과거라는 시간을 지각하게 하고, 과거와 연결된 인간적 관계망을 재구성하는 매체가 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할아버지 묘, 곁에 아버지 묘, 지나 파란 불로 타오
는가

야산 보며 능선을 넘어, 그 아래 파란 물 흐르는 골
까지에 할머니 묘,

그 건너편에 오촌당숙 묘, 증조모 묘(이하석, 성묘).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고향에 대한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경에서 야곱은 "나는 선친들과 같이 있고자 하노라. 나를 가나안 땅 에프론 더 히티데에 있는 아버님 무덤 옆에 묻어 달라. 그 땅은 아브라함이 묘지로서 사둔 땅이며, 그 땅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레베카가 묻혀 있으며, 나 또한 나의 아내 리어를 그 땅에 묻었노라."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고향을 조상의 묘지와 그곳에 자신을 매장하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근원에 마음을 쓰는 인간의 본성이다.²⁷⁾

다음으로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일반적인 곳 중에 하나는 출생지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본 그곳은 개인의 인생 행로의 주축이 되는 곳으로서 의미가 있다. 즉 한사람의 삶의 공간을 좌표로 만들었을 때 그 좌표의 원점은 출생지이다. 그곳은 바로 개인의 성장과정의 시발점이고, 삶의 공간적 경로의 출발점이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 발달 과정을 밟아가며, 공간적 경험을 누적시킨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고향으로 데리고 가주어. 나는 남부에서 나고, 남부에서 살고, 남부에서 일했다. 나는 남부에서 죽고 싶으며, 남부에서 매장되고 싶다”라고 그의 말년에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셋째로, 많은 사람들은 자아가 성립되고 인지능력이 증가되던 성장기의 거주지를 고향으로 지칭한다. 사람들은 고향공간과 그것을 공유하는 혈육과 친지로부터 공동체적 소속감과 정체감을 얻기 때문이다. 이들 혈육과 친지는 고향공간을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사에도 함께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고향이라는 장소는 바로 익숙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고향의 이러한 특징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의 인식처 역할을 한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고향공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상징하고 있다.

창으로 불빛이 나오는 집은 다정해
 불쭉쪽 정다워
 저안엔 엄마가 있고
 아버지도 살고
 그리하야 형제들은 다행하고(노천명, 窓邊).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속담에 ‘사노라면 고향’이라는 말이 있다. 즉 사는 곳이 곧 고향이라는 뜻이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인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 출생지 중심으로 고향을 말한다면, 6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촌락 출신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출

생한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고향은 곧 촌락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향토애 개념을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토애의 이러한 확대 개념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²⁸⁾ 다음의 글은 그러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 도시에서의 삶이 태어난 그 집에서 살던
 했수보다 많아지기 시작한다. 언제부턴가 내가 태어나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여행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집
 이란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나의 집은 이제 이 도시가 된 것이다. (중략) 거
 기엔 추억이 고여 있을 뿐.

(중략) 도시가 그리워진다. 휘황한 불빛들이며, 커피
 냄새며, 엘칸토 매장이며, 크라운 베이커리며(신경숙,
 여행이 끝나면 남들한테도 말하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거주지를 고향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고향처럼 익숙한 곳에서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서 상대적 자유를 갖고,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그곳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Beesley(1990)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의 평생의 3분의 2 이상의 기간을 보낸 곳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미국 사람의 경우는 76%, 그리스 사람의 경우에는 75% 정도를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거주지 선호에도 적용되어 캐나다 도시인은 전원에 인접한 교외를 현저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시적 활동과 전원적 삶을 조화시켜 고향과 같은 느낌을 가지려는 태도라고 한다.²⁹⁾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한 고향 대상 지역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지칭하는 고향은 어디인지 조사하여 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한 개 이상 지역에 표시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거주지와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부모님의 고향(선산이 있는 곳)이 서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볼 때, 성장기 거주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0%, 출생지에 63.6%, 부모님의 고향이며 선산이 있는 곳에 23.5%, 현재 거주지에

표 5. 성별 집단의 고향공간 대상지

(단위: %)

성별 \ 고향공간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부모의 고향(선산)	현재 거주지
남 성	32.3	33.2	10.6	10.6
여 성	31.3	32.8	12.9	8.5
합 계	63.6	66.0	23.5	19.1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4.00545 (.04535)	3.22844 (.07237)	.31406 (.85468)	2.99656 (.08344)

주: 세로 열의 합계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와 무응답자 비율을 합한 100% 가운데 응답자 비율로 그 나머지는 각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 비율임.

19.1%가 고향이라고 답하였다. 부모님의 고향이며 선산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3.5%인 것에 비해, 현재 거주지를 고향이라고 답한 사람이 1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향에 대한 전통적 관념으로부터 탈피와 현실 생활공간에 대한 애착의 증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수치이다.

고향공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있는지 각 항목별 Chi-Square 값을 구해 검정한 결과, 출생지 경우에는 그 유의도가 높았고, 그 이외에는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즉 출생지를 고향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남성이 기대치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성별 차이에서 온 것이라는 추정의 유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호적제도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호적에 기재되는 본적은 거주사실과 상관없이 신고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성립시킨다. 따라서 출생지가 남성들에게 고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³⁰⁾

연령별로 20~30대 청년층과 40대 이후 장년층과 노년층이 고향이라 지칭하는 대상지역의 차이

가 있었는데, 이것이 연령별 차이로부터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부모의 고향에 대해서는 유의도가 낮으나 현재 거주지의 경우에는 유의도가 높았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이 40대 이후의 장년층과 노년층보다는 현재 거주지를 더 중요한 장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표 6).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재학증이거나 졸업자로 구분하여 교육정도별 집단의 고향공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것이 교육정도의 차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유의도가 낮았다. 즉 이는 교육정도에 따른 사회적 집단간에는 고향공간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표 7).

촌락과 도시와 같이 거주공간의 배경이 서로 다른 집단간에 고향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현재 도시거주자와 촌락 거주자별 표본집단의 점유율에 따른 기대치를 근거로 검정한 결과,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지를 고향이라고 지칭한

표 6. 연령별 집단의 고향공간 대상지

(단위: %)

연령별 \ 고향공간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부모의 고향(선산)	현재 거주지
20 ~ 30대	33.6	38.9	12.3	14.0
40대 이후	29.8	26.8	11.0	5.1
합 계	63.4	65.7	23.3	19.1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5.36945 (.06824)	2.63144 (.26828)	4.27603 (.36994)	12.67295 (.00177)

주: 세로 열의 합계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와 무응답자 비율을 합한 100% 가운데 응답자 비율로 그 나머지는 각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 비율임.

표 7. 교육별 집단의 고향공간 대상지

(단위: %)

연령별 \ 고향공간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부모의 고향(선산)	현재 거주지
중·고등 졸업	28.8	28.8	11.4	9.5
대학재학 및 졸업	34.9	37.2	12.1	9.5
합 계	63.7	66.0	23.5	19.0
Chi-square value(significance)	2,10585 (.34397)	.11987 (.98151)	.72071 (.22595)	.63840 (.17035)

주: 세로 열의 합계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와 무응답자 비율을 합한 100% 가운데 응답자 비율로 그 나머지는 각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 비율임.

표 8. 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공간 대상지

(단위: %)

연령별 \ 고향공간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부모의 고향(선산)	현재 거주지
도 시	39.5	40.8	13.7	11.0
촌 락	23.5	24.7	9.5	7.8
합 계	63.0	65.5	23.2	18.8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89560 (.34892)	.00054 (.94187)	2.97486 (.94875)	1.87986 (.63840)

주: 세로 열의 합계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와 무응답자 비율을 합한 100% 가운데 응답자 비율로 그 나머지는 각 항목에 대한 무응답자 비율임.

사람의 평균연령과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자기의 생활공간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려고 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를 고향이라고 응답한 90명 가운데 27%가 현재 거주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를 고향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6년이며, 평균 연령은 35세이다. 평균적으로 생애의 약 42%에 해당되는 기간을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한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는 데에는 적어도 16년 내외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Beesley(1990)의 조사 결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³¹⁾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변동의 강도와 속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2) 고향공간의 규모

고향의 공간적 규모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르다. Sopher(1979)는 고향이미지에 포함된 함의성(含意性)을 풀어내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집(home, house), 고향 마을(hometown), 조국

(hometown) 등은 의미론적으로 고향의 규모를 말하며, 동시에 안전과 친숙함을 내포한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는 말이라고 하였다.³²⁾

이와 같이 그러한 감정이 전달되는 공간이라면 그곳은 모두 고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은 곧 출생지를 기점으로 경험공간을 확대하여 가는 과정이며, 이것이 확대될수록 고향의 범위도 확대된다. 고향공간은 고향집을 원점으로 삼아 이웃, 동리, 도시, 지방, 국가로 동심원적 확대를 거듭하여 마침내는 지구 전체에 이른다. 해외로 이민한 한국인의 고향은 한국이며, 달나라를 갔던 미국인 우주 비행사 Glenn의 고향은 지구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로 한정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보았다. 문항은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에 이르는 순위로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공간적 범위를 동, 리, 자연 부락 등에 해당되는 우리 동네로 지칭하였다. 순위점수의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2.7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부터 그 보다는 확장된 우리 마을을 포함한 지역을 고향이라고 하였다(그림 1). 성별, 연령별, 학력별, 거주공간별 배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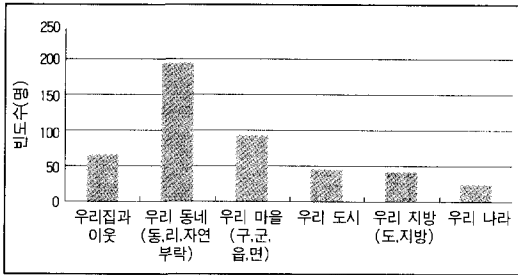


그림 1. 고향의 공간적 규모

따라서 고향공간 범위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4. 고향의식의 정서적 특징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고향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곳과 관련이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적 선호와 애착이 포함된다. 이러한 선호와 애착은 타향에 해당하는 현재 거주지의 대향(對向)에서 항상 현재의 삶을 조절하고, 사회적 삶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³³⁾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고향공간과 집단과의 관계는 바로 사회적 관계가 된다.³⁴⁾ 이러한 관계를 역으로 진술한다면, 어떤 사회적 상황이 고향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신이 처량하게 되면 고향 길을 기웃거리게 되나 봄이다.”와 같은 표현은 바로 그런 관계를 잘 나타낸다.³⁵⁾ 이와 같이 고향은 개인의 사회적 삶 속에서 끈임이 없이 의식되는 대상으로 개인의 상처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치를 지닌다.

우리 나라 사람은 고향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향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향민이라면 월남으로 인한 실향민과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한 실향민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 이전에 출생한 우리 나라의 청장년층, 노년층의 대부분은 실제로 촌락 출신이거나,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도시환경은 촌락과 커다란 차이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실향민과 다름이 없다.

한편 그 시대에 이촌향도의 물결을 탄 사람들

의 고향은 애착이 컸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좌절, 고단함으로 가득 찬 곳으로서 벗어나고 싶었던 땅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도피하고 싶어하는 의식도 고향에 얽매이는 인간적 정서의 한 측면이라고 한다.³⁶⁾ 고향은 이와 같이 항상 이탈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은 고향을 떠난 삶이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이규태(1983)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인이 위화(違和)공간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상대적으로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 고향의식과 감정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떤 때에 고향을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대체로 제일 많이 생각날 때는 슬플 때, 좌절할 때, 소외감을 느낄 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 피곤할 때 등 부정적인 순간에 고향이 생각난다고 전체 응답자의 54%가 대답하였고, 기쁠 때, 성취감을 느낄 때 바쁠 때, 명절 때 등 긍정적인 때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6%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바쁠 때를 긍정적인 것으로 본 것은 성인의 입장에서는 바쁠 때가 보람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고향생각이 나는 시점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교육별, 현재 거주지별 집단을 구분하여 그 경향성을 조사하고, 이것이 집단적 차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적합성을 검정하여 보았다(표 9).

검정결과, 고향의식이 발현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별, 교육별, 현재 거주지별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고,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은 긍정적일 때 고향생각을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 여성은 부정적일 때 고향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향이라는 장소와 사회적 동기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볼 때는 40대 이후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긍정적인 순간에 고향을 많이 생각하는 데에 비해서, 20~30대 청년층은 부정적일 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공간별로는 도시와 촌락 거주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촌락거주자가 긍정적인 때에 고향생각을 많

표 9.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의식 발현 시점

(단위: %)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응답자		고향이 의식되는 시점	*긍정(① ③ ⑦ ⑨)	**부정(② ④ ⑤ ⑥ ⑧)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성별	남 성		54.0	46.0	10.76661
	여 성		39.0	61.0	(.00103)
연령별	20 ~ 30대		34.7	65.3	33.77448
	40대 이상		61.3	38.7	(.00000)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47.6	52.4	.32346
	대학 재학 및 졸업		44.9	55.1	(.56953)
현거주지별	도 시		40.7	59.3	9.35144
	농 촌		55.0	45.0	(.00932)

주: *는 긍정(① 기쁠 때, ③ 성취감을 느낄 때, ⑦ 바쁠 때, ⑨ 명절 때), **는 부정(② 슬플 때, ④ 좌절할 때, ⑤ 소외감을 느낄 때, ⑥ 피곤할 때, ⑧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임.

이 하는데 비해서, 도시 거주자는 부정적일 때 고향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향의식과 감정적 전환

그렇다면 고향을 생각하면 어떤 정서로 바뀌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에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경향성과 인구·사회적, 거주공간별 배경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그 차이를 집단간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적합도를 검정하였다(표 10).

그 결과, 표본집단의 약 80% 이상이 고향을 의식할 때 얻어지는 감정적 특징은 행복한 느낌과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향의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하는 현상은 성별, 연령별, 교육별, 거주공간별 배경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프고, 우울하고, 허전한 느낌에 표시한 사람들의 비율은 모든 경우에 10%를 상회하는 정도이다. 즉 고향은 흔히 슬프거나 좌절할 때와 같은 부정적인 때 많이 의식되지만, 그러한 고향의식은 곧 다시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향의 어떤 요소가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향 의식을 지배하는 추억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이 고향 생각과 함께 떠오르는 추억으로 긍정적인 것을 들고 있지만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집단별 특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적합도를 검정하여 보았다(표 11). 검정 결과,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40대

표 10.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의식을 통한 감정적 전환

(단위: %)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응답자		고향에 대한 감정적 특징	*긍정(③ ④)	**부정(① ② ⑤)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성별	남 성		87.5	12.5	.22237
	여 성		88.0	12.0	(.88110)
연령별	20 ~ 30대		87.3	12.7	.23155
	40대 이상		88.2	11.8	(.89068)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87.4	12.6	.04377
	대학 재학 및 졸업		88.0	12.0	(.83429)
거주공간별	도 시		85.9	14.1	2.69606
	농 촌		90.6	3.6	(.25975)

주: *는 긍정(③ 행복한 느낌, ④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느낌), **는 부정(① 슬픈 느낌, ② 우울한 느낌, ⑤ 허전한 느낌)임.

표 11.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에 대한 추억의 특징

(단위: %)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응답자		고향에 대한 추억 요소의 특징		*긍정(① ③ ⑤)	**부정(② ④)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남 성	여 성			
성별	남 성			83.0	17.0	1.00092
	여 성			86.3	13.7	(.31709)
연령별	20 ~ 30대			88.1	11.9	10.20502
	40대 이상			80.9	19.1	(.00608)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80.1	19.9	6.19621
	대학 재학 및 졸업			88.4	11.6	(.01280)
거주공간별	도 시			84.5	15.5	6.41991
	농 촌			86.1	13.9	(.04036)

주: *는 긍정(① 즐거웠던 일, ③ 아름다웠던 일, ⑤ 자랑스러웠던 일), **는 부정(② 슬펐던 일 ④ 괴롭고 힘들었던 일)임.

표 12.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 방문 경향

(단위: %)

방문인구·사회·거주공간별 응답자		명절 때 고향		정기적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남 성	여 성			
성별	남 성			62.6	34.3	36.63595
	여 성			37.4	65.7	(.00000)
연령별	20 ~ 30대			54.2	57.4	3.47230
	40대 이상			45.3	42.6	(.48210)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42.5	44.3	.17055
	대학 재학 및 졸업			57.5	55.7	(.91826)
거주공간별	도 시			56.5	66.1	24.12110
	농 촌			43.5	33.5	(.00008)

이후 장년층과 노년층, 중·고등학교 졸업자, 도시 거주자가 고향에서 겪은 부정적인 일을 기대치 이상으로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집단의 특징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향에 대한 애착의 요인

위에서 보았던 한국인의 고향의식의 본성적 측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명절에 고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지, 방문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았다. 고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45.2%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62.6%, 여성이 37.4%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명절 때에 고향을 찾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성별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유의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연령별, 교육별 집단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

으나 거주공간별로 볼 때는 현재 거주지가 촌락이라는 응답자가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고향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차이를 거주공간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정한 결과, 유의도가 아주 높았다(표 12).

다음으로 고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응답자의 고향방문 동기를 조사하여 보았다. 고향방문 동기를 효의 실천이나 책임과 의무라고 표시한 응답자는 '의무감' 때문에, 즐거움과 그리움으로 표시한 응답자는 '향수' 때문이라고 보고,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기적 방문이유를 '의무감'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약 60%이고, '향수'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29%이며, 나머지 11%는 이유를 답하지 않았다(표 13).

의무감이 고향방문의 동기라고 응답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간 그 동

표 13.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 방문 경향

(단위: %)

방문인구, 사회, 거주공간별 응답자		고향방문 동기	의무감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향 수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성별	남 성		39.9	25.54285	16.1	3.81855
	여 성		17.3	(.00000)	10.0	(.05069)
연령별	20 ~ 30대		20.5	15.50600	15.7	4.31656
	40대 이상		35.3	(.00043)	9.3	(.11552)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27.7	.06848	11.2	.97384
	대학 재학 및 졸업		26.6	(.79356)	14.2	(.32373)
거주공간별	도 시		24.5	4.02409	11.7	1.50802
	농 촌		31.7	(.13372)	15.0	(.47048)

표 14.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별 고향의식

(연고가 없어도 고향을 방문하려는 경향)

(단위: %)

고향방문 의지(가족과 친지가 없을 경우)		방문한다	방문하지 않는다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성별	남 성	71.9	24.1	5.33607 (.06936)
	여 성	61.8	32.5	
연령별	20 ~ 30대	63.1	31.0	4.37508 (.35762)
	40대 이상	71.1	25.5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64.6	29.6	1.06852 (.58610)
	대학 재학 및 졸업	68.2	27.7	
거주공간별	도 시	66.2	67.2	6.60112 (.15853)
	농 촌	29.7	27.2	

기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표 13). 고향방문을 효의 실천이나 책임과 의무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차이가 성별 차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추정의 적합도를 조사해 본 결과, 유의성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 집단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40대 이후 장년층과 노년층이 의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자의 출생지를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하였을 때, 출생지가 촌락인 사람이 도시인 사람보다 의무감 때문에 고향을 방문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성장기 거주지를 중심으로 볼 때에도 촌락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응답자의 62.5%, 도시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36.0%를 차지하였다. 즉 출생이나 성장과 관련해서 촌락이라는 공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의무감이 강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향수 때문에 고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성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연령별, 교육별, 거주

공간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13). 이것은 향수라는 감정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향수라는 고향의식이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고향에 가족이나 친지가 살고 있지 않아도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하고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6%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들 315명의 응답자를 중심으로 그 방문의지가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거주공간별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여 보았으나 유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즉 고향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것은 본성적인 것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에게 고향을 방문하려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183명만이 그 이유를 기재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고향공간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87.4%를

표 15.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귀향 계획

(단위: %)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응답자		귀향 계획의 유무	계획있음	계획없음	Chi-square value (significance)
성별	남 성		32.1	62.9	16,24820 (.00030)
	여 성		16.5	78.7	
연령별	20 ~ 30대		23.1	70.5	3,36865 (.49813)
	40대 이상		25.0	72.1	
교육별	중·고등학교 졸업		24.8	69.4	.98190 (.61205)
	대학 재학 및 졸업		23.2	72.7	
거주공간별	도 시		22.1	73.1	26,75973 (.00002)
	농 촌		27.2	68.9	

차지하고, 위안을 얻기 위하여 라고 답한 사람들이 71%였다. 그리고 고향경관의 변화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향을 방문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55%로 대체로 세가지 범주로 그 이유가 나뉘어졌다.

4) 고향의식과 공간적 선호

사람들이 고향을 의식하는 한 그들의 경험과 행동은 고향과의 공간적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고향에 얽매이는 경향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갈수록 희석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은 지역간 장거리 통신망 발달로 이동과 정보의 교환이 원활해졌고, 삶의 다양성이 날로 증가되어 지역간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한편, 고향의식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고향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공간적 행태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더 고향처럼 더 애착을 느끼며 선호하거나, 주위 환경을 고향공간처럼 조성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Terkenli(1995)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경향은 거주지 선택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난다.³⁷⁾ 즉 도시 근교의 전원을 거주지로 선호하거나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고향 회귀의식과 공간적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미래에 고향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23.9%가 고향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향을 미래의 거주지로 다시 선호하겠다는 응답자

의 점유율이 23.9%나 되는 것은 도시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적 특성에 비한다면 의미있는 것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응답자의 성별 차이는 상당히 크다.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남성 응답자가 32.1%로 여성 16.5%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를 성별 집단간의 차이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유의성이 아주 높았다. 응답자의 연령별, 교육별 배경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의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볼 때는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즉 이것은 개인의 공간적 경험이 거주지 선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향으로의 이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현재 거주지 모두의 경우에 촌락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배경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고향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현재 거주지 등의 공간적 배경, 즉 개인의 공간적 경험이 고향으로의 이주 동기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유의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고향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동기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고향으로의 이주 동기는 환경, 가족관계, 은둔과 휴식, 향수 등 4개의 범주로 크게 구분되었다. 그들 중의 44%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조용한 환경을 이유로, 다음으로 22%가 향수나 막연한 그리움,

표 16. 거주지 이동계획 유무와 공간적 배경의 차이 검정 결과

(단위: %)

고향 이주 계획 유무 도시·촌락별 응답자	출생지		성장기 거주지		현재 거주지	
	유	무	유	무	유	무
도 시	14.3	79.1	14.6	78.9	22.1	73.1
촌 락	30.5	65.8	33.2	64.1	27.2	68.9
Chi-square value	18,30708		30,08933		26,75973	
(significance)	(.00107)		(.00000)		(.0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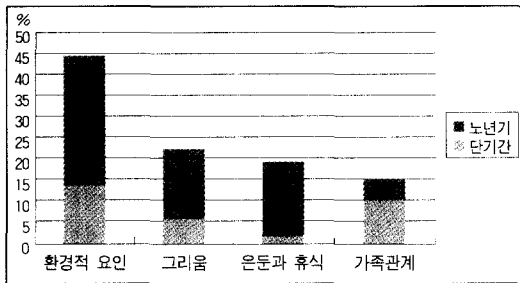


그림 2. 고향으로 이주 계획과 시기

19%가 퇴직 후의 은둔과 휴식, 15%가 부모님이나 친척 등의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이주를 계획한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가족관계 때문에 이주하겠다는 사람의 67%가 가까운 시기에 이주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은둔과 휴식을 이유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자의 92%가 노년기에 이주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그림 2).

5. 고향공간의 이미지

고향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너무나 다양하다. 비가시적이며 모호한 요소로부터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요소,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확인되는 감각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고향공간의 이미지에 수렴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고향이미지 구성요소

첫째로 고향이미지에는 우주, 계절, 지형, 동식물과 같은 자연환경 요소가 포함된다. 그런데 고향이미지의 자연환경 요소들은 자연 그대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느

낌이 거기에 실려진다. 그러한 느낌은 '황금 들녘', '소리 죽은 가을' 등과 같이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에 함성된 어휘나 형용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고향이미지에는 독립적 요소로서의 자연적 요소나 인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의 감정과 촉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고향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 본 결과, 표 17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어떤 요소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고향이미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고향이미지 구성요소 8개 항목 가운데 ①의 가족, 친지, 친척 등 사람들이 1순위로 지적된 빈도수가 가장 높아 응답자의 30.6%를 차지하였다. 두번째로 많이 1순위로 지적된 항목은 ②의 자연환경으로 29.7%를 차지한다. 그리고 3번째로 많이 1순위로 지적된 항목은 ③의 가옥으로 응답자의 5.7%가 되었다(그림 3). 그러나 각 항목의 순위 평균 점수를 구해본 결과, 중요도의 1위는 사람, 2위는 자연환경, 3위는 방언과 관습 등이었다(표 18).

고향공간 이미지의 주요 구성요소 8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 2, 또는 3 순위라고 답한 사람의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을 항목별로 누적한 결과도 가족·친척·친지를 포함하는 사람들과 자연환경이 고향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3).

2) 고향이미지 구성요소의 집단간 차이

다음은 성별, 연령별, 교육별, 거주공간별 응답자의 고향이미지 구성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인문환경적 요소에 대한 성별차이는 현저하여 인문환경적 요소를 1 순위로 답한

표 17. 고향이미지의 구성요소

세부요소 구성요소	세부 요소	지각된 구체적 요소
자연적 요소	우주	저녁 노을, 땅거미, 달, 달빛, 밝은 달, 초승달, 햇빛, 햇벌, 햇살, 별, 성근 별, 별 세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햇빛, 소리 죽은 가을 강, 가을 벌, 가을 숲, 가을 들길
	대지	황금들판, 황금들널, 마른 논바닥, 보리밭, 논배미, 논, 텃논, 모내기, 밭, 밀밭
	하천	강물, 여울물, 시냇물, 실개천
	산	산길, 산(능선, 골짜기, 산등성이, 산바위)
	바다	고기잡이 배가 떠있는 바다, 금빛 바다, 파도치는 바다, 푸른 바다, 초록 바다, 갈매기 나는 바다, 모래무지, 모래밭, 모래톱, 모래성
	동물	들짐승(토끼, 노루, 다람쥐, 들쥐) 조류(종달새, 까마귀, 산새, 참새떼, 까치, 제비, 학, 꿩, 솔개) 곤충(방아깨비, 고추잠자리, 장구잠자리, 메뚜기, 쇠똥벌레, 반딧불)
	식물	꽃(채송화, 진달래, 할미꽃, 원추리, 패랭이, 도라지, 민들레, 들국화, 질경이꽃, 풀초롱꽃, 억새꽃, 코스모스, 복숭아꽃, 살구꽃, 나팔꽃, 감자꽃, 찹쌀꽃, 달맞이꽃) 아카시아꽃) 나무(미류나무, 동구 밤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정자나무, 대추나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밤나무, 밤송이, 소나무, 감나무, 대나무) 풀(나물, 쑥, 잔디밭, 클로버, 풀 썩)
인문적 요소	사람	가족, 친척, 어머니의 눈물, 부모님의 미소, 동생, 어르신네, 동구 밖을 내다보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른들, 할머니의 뒷모습, 아내, 누나
	의식주	한복(남 끝동 저고리, 옥색치마, 흰 무명저고리, 색동 저고리, 모시치마, 자줏빛 반호장 웃고름) 음식(사과, 배, 감, 식혜, 산적, 과일, 밤, 대추, 햇곡밥, 막걸리, 미숫가루, 절편, 수수, 보리) 집(마당, 대청마루, 기와집, 사랑채, 사립문, 초가집, 외딴집, 돌담, 질화로, 지붕, 마루, 문설주, 명석, 헛간, 광, 소슬 대문, 일각대문, 뒤주, 안방, 온돌, 측간, 뒷마루)
	생활	가축(암소, 소, 송아지, 닭, 병아리, 얼룩백이 황소, 돼지새끼, 오리) 길(독길, 돌담길, 통학길, 시골길, 황토길, 자갈길, 성묘길, 들길, 산길, 고개길, 눈 내리는 길) 무덤(할아버지 무덤, 아버지 무덤, 비석, 산소 가는 길에 피어 있는 들국화, 깨어진 비석)
	공공장소	장터, 운동장, 초등학교, 저수지, 빨래터,
	놀이	별 세기, 물고기 잡기, 전쟁놀이, 돌팔매질, 쥐불놀이, 모닥불에 감자·콩·강냉이 굽기
	문화적유산	전통, 관습, 사투리, 쥐불놀이, 서낭당, 정자, 강승
	감각적 요소	소리
냄새	말 오줌 냄새, 농약 냄새, 흙 냄새, 비린내, 꽃냄새, 수국향기, 흰 나리꽃, 향기, 바다 냄새, 풀 냄새, 닭장 냄새, 이끼 냄새, 낡은 책 냄새	
색깔	파란 하늘, 검붉은 노을, 자줏빛 반호장 웃고름, 황금 들판, 초록 바다, 노란 개나리, 붉은 단풍	
맛	떡, 된장, 간장, 고추장, 냉면, 빈대떡, 김치 등 지닌 각 고장의 맛	
감촉	엄마의 주글주글한 손의 감촉, 맨발로 느끼는 모래나 흙의 감촉, 바닷물에 몸을 담글 때의 감촉	

표 18. 고향이미지 구성요소별 순위점수와 중요도

고향의 구성요소	①사람	②자연 환경	③생업	④가옥 및 건물	⑤방언과 관습	⑥냄새와 색깔	⑦조상의 묘소	⑧소리
순위점수	1,638	2,091	3,078	3,216	2,835	3,501	3,355	3,636
중요도	1위	2위	4위	5위	3위	7위	6위	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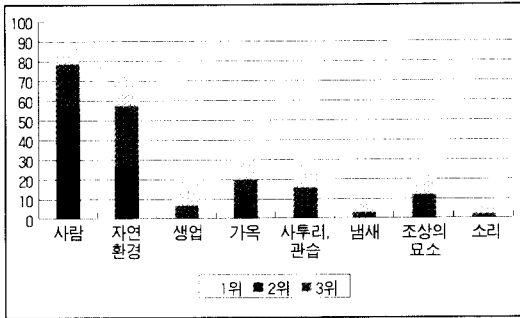


그림 3. 고향이미지 구성요소별 상위 순위 점유율 누적 분포도

남성은 전체의 13.7%인데 비해서 여성은 16.9%를 차지한다. 이러한 차이가 성별 차이로부터 온 것인지 검정한 결과, 유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연령별 집단간 고향이미지 구성요소의 차이를 보면, 인문환경적 요소를 1위로 표시한 비율이 20~30대 청년층의 19.2%로서 40대 이후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11.3%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연령과 관계가 있을 것이

지 조사하여 본 결과, 자연환경적 요소의 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도시 거주자가 19.4%로 촌락 거주자 10.0%보다 훨씬 더 높게 자연적 요소를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거주공간적 배경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도 그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19).

마지막으로 고향공간 이미지를 구성하는 인문환경적, 자연환경적, 감각적 요소 등 세 요소간의 상호관계가 있는지 자기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문환경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는 상관계수 r 값이 .8073으로 아주 높은 상관도를 보이나 이 두 요소와 자연환경적 요소와의 관계에서는 낮은 상관도를 보인다(표 20).

3) 고향이미지 유형

한국인의 고향이미지의 일반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향을 생각하거나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

표 19.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의 고향이미지 구성요소 차이 검정 결과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성별	연령별	교육별	거주공간별
구성요소인					
인문환경적 요소	value (significance)	14.06229 (.01522)	5.91749 (.00021)	33.67357 (.31433)	14.57069 (.14852)
자연환경적 요소	value (significance)	12.79783 (.07719)	7.19952 (.92675)	4.76650 (.68843)	159.91646 (.00000)
감각적 요소	value (significance)	10.31974 (.17117)	32.99578 (.00289)	6.95346 (.43374)	10.23658 (.74469)

라는 추정에 대한 검정 결과, 그 유의도가 아주 높았다(표 19). 한편 고향공간 이미지에 있어서 감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도 연령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이 40대 이후의 장년층과 노년층보다 감각적 요소에 높은 순위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연령별 차이로부터 온 것인지 검정한 결과,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그러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를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고향이미지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무엇인

표 20. 고향이미지 구성요소간 상관관계

	인문환경적 요소	자연환경적 요소	감각적 요소
인문환경적 요소	1.0000 (473) P = .	.0259 (418) P = .597	.8073 (473) P = .000
자연환경적 요소	.0259 (418) P = .597	1.0000 (418) P = .	.1592 (418) P = .001
감각적 요소	.8073 (473) P = .000	.1592 (418) P = .001	1.0000 (473) P = .

* Coefficient / (Cases) / 2-tailed Significance
주: () 안의 숫자는 응답자임.

도록 하였다. 매우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대체적인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인간적 요소와 놀이 등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고향이미지이다 (그림 4). 즉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가족, 친척, 친지 등과 막연하지만 성장기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일들이 고향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과 관건해서 기억되는 일은 즐거운 것과 슬픈 것으로 구별된다. 효의 실천 때문에 고향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하는 한 40대 남성은 “어릴 때 아이들과 뛰어 놀며, 즐거웠던 시절과 명절 때마다 많은 음식을 만들며, 새신, 양말, 옷을 사서 입혀주시던 부모님 모습”으로 고향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즉 고향의식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신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연상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고향이미지를 “부모님과 가족의 장례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고향이

미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결별이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흰눈 쌓인 눈 언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시를 쓰던 그 소녀가 그리워진다”라고 하며 자신의 잃어버린 젊은 날을 고향이미지로 간직하였다.

둘째 유형의 고향이미지는 과거 특정 시점에 지각된 그대로의 고향경관이다. 성장기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거주하였다는 40대 남성은 그의 고향이미지를 “서강 변의 당집과 미나리 팥”이라고 말했다. 한 50대 여성은 “어릴 때 살던 초가집 뒤뜰에 대나무 밭과 뒷동산 큰바위, 야산에 핀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넓은 들판과 냇가”라고 한다 (그림 5). 서울에서 태어난 한 20대 남성은 “나의 고향은 딱딱한 아스팔트와 아파트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경험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경관을 고향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 남성으로 월남 실향민은 그들은 고향이미지를 “오솔길과 포플러나무와 우리 집(초가집),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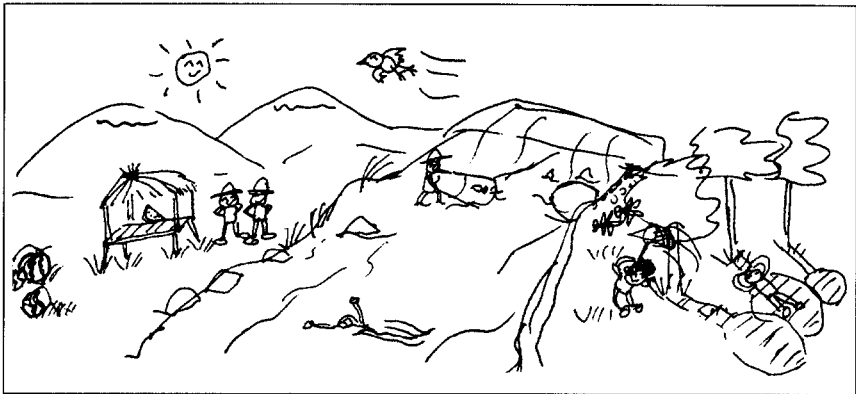


그림 4. 사람과 놀이 중심의 고향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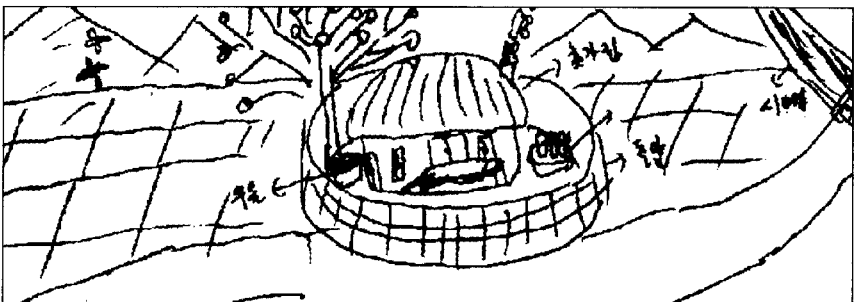


그림 5. 경관 중심의 고향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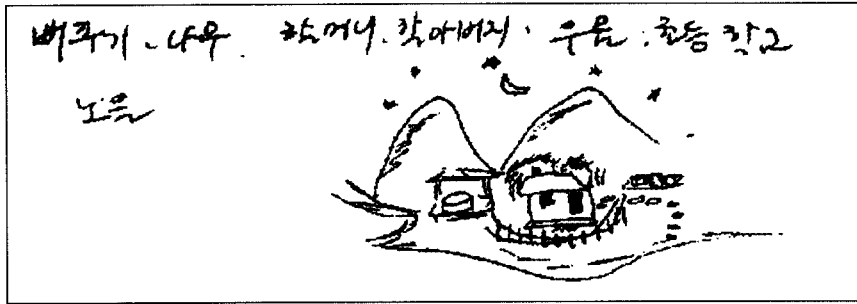


그림 6. 고향이미지의 전형(두개의 산과 계곡의 초가집)

리고 우리 옆집”,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 등 그들의 성장기 거주지의 경관을 그대로 고향이미지로 간직하고 있다.

셋째 유형의 고향이미지는 개별적인 개인의 삶의 양상이다. 전북 순창이 출생지인 40대 남성은 “보릿고개의 춘궁기에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고기를 잡아먹던 일과 땀감 부족으로 고생하던 일”이 생각난다고 한다. 전남 순천에서 출생한 50대 남성은 “너무나 가난한 농촌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도시를 동경하며 살았던 시절”로 고향 공간을 그리고 있으나 그는 향수와 도시 생활의 염증을 이유로 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 속초가 고향이며 현재 거주지가 서울인 40대 한 여성은 “뱃고동 소리가 들리며, 어촌냄새가 나며, 파도의 거친 숨결이 들리는 곳에 비틀거리며 걷는 어부들의 떠드는 소리들,”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고향이미지에서 그녀는 오감으로 지각되는 고향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되살리고 있다.

넷째 유형의 고향이미지는 개인의 공간적 경험과 상관없이 개념화된 추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고향에 관한 글로 표현된 문장이나 그림에서 전형적으로 유형화된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즉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촌락의 거주자나 모두 고향이미지로 전형적인 전원의 장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개의 산으로 만들어진 계곡 사이에 있는 초가집”이다(그림 6). 20대 남성은 “언덕 위의 작은 초가집과 하얀 예배당”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림에서 더 빈번히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미지를 시적 이미지와 일치시키

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은 정지용의 「향수」가, 한 실향민은 이은상의 「가고파」가 그의 고향이미지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6. 결론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체험한 장소 중에 하 나인 고향을 통해서 자신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지역적 정체성을 얻으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동기도 얻고, 고향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며 위안을 얻으려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는 고향과 원거리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생활에 반영되어 우리의 삶을 조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의미론적 입장과 지리학적 입장에서 고향공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한국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공간적 대상, 고향에 대한 감정과 선호, 고향공간의 지리적 특징 및 이미지 등을 조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의 본질적 정서(ethos)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은 의미론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유희 공간이고, 잠재의식으로 존재하는 고통이자 하나의 강박관념이며, 동시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키는 순환성이라는 본질적 개념을 지닌다. 지리학적 의미에서 보면, 고향은 다양한 지리적 요소가 수렴된 공간적 대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지방색과 장소애를 조성하는 곳이다. 이러한 개념은 보편적 개념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고향의 공간적 대상은 출생한 곳, 가족과 친지로 연결되고 환경에 대한 자각을 얻을 수 있었던 성장기 거주지, 선친의 묘지가 있는 곳, 그리고 현재의 거주지 등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향공간의 대상지로 성장기 거주지와 출생지를 지칭한다. 성장기 거주지를 고향으로 지칭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거주공간별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출생지를 고향이라고 지칭하는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아주 높아서 남성이 여성보다 그들의 출생지에 대해서 고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를 고향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20~30대 청년층이 40대 이후 장년층과 노년층보다 높다. 그런데 현재의 거주지에 대해서 고향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감정적 애착을 갖는데 걸린 기간은 대체로 평균 16년으로, 생애 기간의 약 40% 이상을 거주한 장소가 비로소 고향으로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향의 공간적 규모는 고향으로부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의 공간적 규모는 대체로 자신의 집과 이웃,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지방, 우리 나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 규모는 동이나 자연부락을 포함하는 우리 동네의 규모이다.

넷째, 고향의식을 통해서 본 한국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정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와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고향의식이 발현되는 시점은 대체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시점이지만, 이것은 고향을 떠올림과 함께 다시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시점에 고향을 생각하는 경향은 성별, 연령별, 거주공간별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청년층, 거주공간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고향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고향의식이, 그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심리적 과정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다. 실제로 고향공간을 통해서 개인이 기억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즐겁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던 일과 같은 긍정적인 것이다.

다섯째, 한국 사람들의 고향의식의 본질을 고향 방문과 그 동기, 거주지 이동 계획과 그 이유와 같은 공간적 행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의무나 책임과 같은 사회적 측면과 막연한 그리움이나 심미적 환경에 대한 선호와 같은 본성적 측면에서 나온 두 가지 특질이 있다. 우리 나라 성인 가운데 약 절반이 명절에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별로는 남성이 훨씬 많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전통에서 온 것으로 한국사람의 고향의식에는 사회화된 특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향의식의 또 다른 요인은 막연한 그리움과 향수, 심미적 환경에 대한 선호와 같은 것으로, 이는 인간의 본성적이고 보편적 특질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가 고향에 부재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려는 태도와 노년기 거주지로 고향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고향으로의 회귀하고 싶어하는 인간적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고향이미지에 수렴되어 있는 공간적 요소는 인문환경적 요소, 자연환경적 요소, 감각적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향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인문환경적 요소이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고향이미지에 수렴되어 있는 요소들의 중요성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향이미지에서는 인문환경적 요소가 중심을 차지하며, 연령별로 청년층의 고향이미지에는 인문환경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거주공간적 배경으로 볼 때 도시거주자의 고향이미지에는 자연환경적 요소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요소들은 고향이미지에 각각 독립적으로 포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공간체험을 통해서 얻은 주관적 감정이 수렴되어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다. 특히 인문환경적 요소와 감각적 요소는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고향이미지의 유형을 보면, 첫째는 긴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향을 상징하는 것, 둘째는 지각된 경관을 중심으로 고향을 상징하는 것, 셋째는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특정 시점의 삶의 양상이 그대로 고향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넷째는 전형화된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 초가집으로 상징되는 극도로 개념화되고 추상화된 것이거나 시적 이미지로 상징된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한국인의 고향에 대한 애착은 강도를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고향으로의 회귀 본능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정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사람들의 고향의식은 이러한 보편적 정서 위에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고향의식이 첨가되어 그 정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고향의식의 그 첫째는 효에 근본을 둔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이다. 즉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의 실천과 같은 가족관계, 조상에 대한 제례의식의 참석, 자연부락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는 광범위한 실향의 결과에서 온 것이다. 즉 남북분단으로 인한 실향민과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과 시가지 확장 등에 따른 실향민이 특히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고향관의 정서적 특징과 지리적 속성을 밝히는 이 연구는 일견 과거 지향적 연구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한국인의 고향관, 고향공간에 대한 인지요소와 선호, 고향의 심리적 특징, 지리적 패턴 등은 직접적으로 미래의 거대 도시 공동체 형성과 그 운영과 관련된 뉘앙스(nuance)를 찾아 이를 과거와 조화 시킴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註

- 1) Fullilove, M. T., 1996, "Psychiatric Implications of Displacement: Contributions from Psycholog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12), 1515에서 이러한 심리적 과정의 요인이 고향의 상실이라고 한다.
- 2)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 3) 전국인구의 교육연령 통계는 재학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비교가 어렵다.

- 4) 촌락과 도시의 구분은 행정구역의 시대별 변화와 촌락경관의 경험 가능성을 유의하였다.
- 5) 임상윤, 1990, 故郷空間 認知에 관한 研究: 慶尙道 農村 出身 大學生의 경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류우익, 1992, 그곳이 어디메뇨, 마당, 1992년 12월호.
- 7) 신명섭, 1997, 사산의 추억, 서해면지(서해면지편찬위원회), 서울, 도서출판 일원.
- 8) Cioranescu, A., 1971, Utopia: Land of Cocaigne and Golden Age, *Diogenes*, Fall 1971, 75, 85.
- 9) Tuan, Yi-Fu., 1986, *The Good Lif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Wisconsin, 15.
- 10) 박완서, 1994, 엄마의 말뚝, 서울, 세계사.
- 11) 양현승, 1987, 17-19.
- 12) 이희승, 1972, 국어대사전.
- 13) 전규태(외), 1998, 스스로 거름이 된 별꽃 하나, 서울, 나눔사, 93.
- 14) Gill, S., 1991,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8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while he blew his flute
 the calm
 And dead still water lay upon my mind
 Never before so beautiful, sank down
 Into my heart and held me like a dream
- 15) Gill, S., 1991, 2.
- 16) Gill, S., 1991, 2의 영어 원문은 "The key to all enquiry about the human being is that nothing that matters is really lost"이다.
- 17) 생뚝쭉페리(전혜린, 신경자 공역), 1977, 야간비행, 서울, 범우사.
- 18) Mack, M. et al., eds., 1979,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Masterpieces*, 2, W. W. Norton & Company, 1268.
- 19) 낭만주의 시인 Eliot(1888-1965)의 역작 Four Quartets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과거와 현재의 순환적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Mack, et al., eds., 1979, 1268). 그의 "Time past and time future /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has been / Point to one end, which is always present"(Eliot, T. S., 1974, 190)라고 읊은 구절이라든가, "Time

- present and time past /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 /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Eliot, T. S., 1974, 189)라는 구절은 그가 강조하는 순환적 관계에 대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 20) 중앙일보, 1999년 5월 3일, 16.
- 21) Tuan, Yi-Fu., 1974, 97에서 그는 건강한 사람만이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보며,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구나(Oh, what a beautiful morning, oh what a beautiful day!)” 라며 외칠 수 있다.
- 22) Terkenli, T. S., 1995, Home as a Region, *The Geographical Review*, 85(3), 324-325.
- 23) Leaky, R. and Lewin, R., 1992, Origins Reconsidered in Search of What Makes Us Human, N.Y, Doubleday, 12.
- 24) Tuan, Yi-Fu.,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5-12.
- 25) Malmberg, T., 1980, Human Territoriality: Survey of Behavioral Territories in Man with Preliminary Analysis and Discussion of Meaning, *New Babylon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33, Mouton Publishers, New York, 111.
- 26) Malmberg, T., 1980, 111.
- 27)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자식들에게 남긴 말로 구약성서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다.
- 28) 류우익, 1982, 172.
- 29) Beesley, 1990, 318-330.
- 30) 김주수, 1992, 친족 · 상속법: 가족법, 서울, 법문사, 77-79, 377-385.
- 31) Beesley, 1990, 318-330.
- 32) Sopher, D. E., 1979, The Landscape of Home: Myth, Experience, Social Meaning, ed. by D. W. Meinig,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29-149에서 Sopher(1979, 130)는 home과 house의 차이는 house의 내부가 home이지만 house는 폐쇄된 공간을 의미하고, home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말에 home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Porteous(1976, 129)는 지리적 공간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는 inside/outside, 즉 home/nonhome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love of home'이라고 할 때 home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으며, 그 내용도 가족, 친척, 이웃, 민족 등이 모두 포함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
- 33) Norton, B. G. and Hanon, B., 1997, Environmental Values: A Place-Based Approach, *Environmental Ethics*, 19(3), 232.
- 34) Malmberg, T., 1980, Human territoriality: Survey of behavioral territories in man with preliminary analysis and discussion of meaning, *New Babylon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33, Mouton Publishers, New York, 7-12.
- 35) 마당 1992년 12월호, 류우익, 171.
- 36) Porteous, J. D., 1985, Literature and Humanist Geography, *Area*, 17(2), 119.
- 37) Terkenli, T. S., 1995, 324.

文 獻

- 강인숙, 1997, 강인숙문학평론집: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도서출판 등지, 서울.
- 김운찬, 1992, “파베세의 문학에 나타난 고향이미지, 어문연구,” 제5집, 효성대학교, 363-388.
- 김윤식, 1992, 환각을 찾아서, 세계사, 서울.
- 김재수, 1982, “고향회귀의 문학: 황석영논,” 어문논총, 제6호, 전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5-210.
- 류우익, 1992, 그곳이 어디메뇨, 마당, 1992년 12월호.
- 박완서, 1994, 엄마의 말씀, 세계사, 서울.
- 신명섭, 1997, 사산의 추억, 서해면지(서해면지편찬위원회), 도서출판 일원, 서울.
- 썸뽕쥬페리(전혜린 · 신경자 공역), 1977, 야간비행, 범우사, 서울.
- 안수길, 1959-1961, 북간도, 삼중당, 서울.
- 양현승, 1987, “고향의 미학,” 비평문학, 제1집, 177-105.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서울.
- 이서행, 1984, 한국 · 한국인 · 한국정신, 대광서림, 서울.
- 이윤중, 1983, “魯迅의 <고향> 연구,” 인문논집, 27, 고려대학교, 163-177.
- 이은숙, 1993, “文學作品 속에서의 都市景觀: 蔡萬

- 植의 濁流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 상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7.
- 1995, “조선인 이민의 북간도 정착과정과 공간인지: 安壽吉의 ‘北間島’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7, 상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5-105.
- . 1996, “北間島 景觀에 대한 朝鮮移民의 이미지: 崔曙海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상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5.
- . 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 이민의 공간인지: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39-54.
- 이재선, 1979, “최서해와 기아의 딜렘마,” 한국현대 소설사, 흥선사, 서울.
- 임상윤, 1990, 고향공간 인지에 관한 연구: 경상도 농촌출신 대학생의 경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규태 외 지음, 1998, 스스로 거름이 된 별꽃 하나, 나눔사, 서울.
- 제만해, 1994, 한국 현대시의 고향의식 연구: 노천명, 이용악 시를 중심으로, 시세계, 서울.
- 한국현상학회(편), 1990,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심설당, 서울.
- Beesley, K., 1990, Residence Paths and Community Perception: A Case Study from the Toronto Urban Field, *The Canadian Geographer*, 34(4), 318-330.
- Cioranescu, A., 1971, Utopia: Land of Cogaigne and Golden Age, *Diogenes*, Fall 1971, 75, 85-121.
- Darby, H. C., 1948, The Regional Geography of Thomas Hardy's Wessex, *Geographical Review*, 38, 426-443.
- Eliot, T. S., 1974, *Collected Poems 1909-1962*, Faber & Baber, London.
- Fullilove, M. T., 1996, Psychiatric Implications of Displacement: Contributions from Psycholog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12), 1515-23.
- Gill, S., 1991, William Wordsworth: The Prelu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ng, R., Connell, J. and White, P., 1995, *Writing across Worlds: Literature and Migration*, Routledge, London.
- Lanegrn, D. A. and Sousan A. T., 1976, *Geography Through Literature, Special Issue on Place Literature, Places*, 3(1), 5-12.
- Leaky, R. and Lewin, R., 1992, *Origins Reconsidered: Search of What Makes Us Human*, Doubleday, N.Y., 12
- Lehan, R., 1998, *The City in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Low, S. M. and Irwin, A.,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in Altman, I. and Setha, M. L., (eds.),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1-12.
- Mack, M., et al., 1979,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Masterpieces*, 2, W. W. Norton & Company.
- Malmberg, T., 1980, Human Territoriality: Survey of Behavioral Territories in Man with Preliminary Analysis and Discussion of Meaning, *New Babylon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33, Mouton Publishers, New York.
- Norton, B. G. and Hanon, B., 1997, Environmental Values: A Place - Based Approach, *Environmental Ethics*, 19(3), 227-246.
- O'Connell, S., 1990, *Imaging Boston: A Literary Landscape*, Beacon Press, Boston.
- Pai, M. K., 1989, *The Dreams of Two Yi-min*,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 Paul, W., 1955, *Writing Across Worlds: Literature and Migration*, Routledge, New York.
- Pirie, G. H., 1982, Mostly 'Jubek': Urbanism in Some South African English Literature, *South African Geographical Journal*, 64(1), 63-71.
- Pocock, D., 1981, Introduction: Imaginative Literature and the Geographer, in

-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Essays on the Experience of Place*, ed., Pocock, D., Croom Helm, London, 142-158.
- Porteous, J. D., 1985, Literature and Humanist Geography, *Area*, 17(2), 117-122.
- , 1979, Home: The Territorial Core, *Geographical Review*, 66, 383-390.
- Riley, R. B., 1992, Attachment to the Ordinary Landscape, in Irwin and Setha M. Low.(eds.),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13-35.
- Rybczynski, W., 1996, *City Life*, Touchstone, N. Y.
- Salter, C. L. and Lloyd, W. J., 1977, Landscape in Literature, *Resource Papers for College Geography*, 76-3.
- Shepard, P., 1967, *Man in the Landscape: A Historic View of The Esthetics of Nature*, Alfred A. Knopf, New York.
- Simmons, I. G., 1996, *Interpreting Nature: Cultural Constructions of the Environment*, Routledge, London.
- Sopher, D. E., 1979, The Landscape of Home: Myth, Experience, Social Meaning, ed. by Meinig, D. W.,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29-149.
- Starobinski, J., 1966, The Idea of Nostalgia, *Diogenes*, Summer 1966, 54, 81-103.
- Terkenli, T. S., 1995, Home as a Region, *The Geographical Review*, 85(3), 324-334.
- Tuan, Yi-Fu.,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 1978, Literature and Geography: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in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eds., Ley, D. and Marwyn, S. S., Maarouga Press, Chicago, 194-206.
- , 1986, *The Good Lif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Wisconsin.
- Walsh, D., 1969, *Literature and Knowledge*, Wesleyan University Press, Middletown, Conn.